

金敏榮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Buddhist Books Owned by Kim Min-Young

尹 惠 營(Yun, Hye-Young)*

姜 順 愛(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김민영 소장 불서의 분석 |
| 2. 김민영 소장 불서의 수집경위와
장서구성 | 4. 결 론
<참고문헌> |

< 초 목 >

본 연구는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는 불서자료의 수집경위와 장서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장 불서 734종 1,292책 중 유간기 자료 272종 388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판본의 특징 및 계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김민영은 1960년대 후반부터 通文館을 통하여 불서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好古堂, 文友書林 등 고서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대표불서군별로 장서구성을 살펴보면, 經典類 126종 224책, 儀式儀禮集 49종 52책, 僧侶 文集 46종 51책, 韓國 撰述類 34종 44책, 蒙山德異本 17종 17책이다. 3) 대표불서군별 판본 특징은, 經典類 중에서는 태종 17년(1417) 文殊寺 翻刻本の 「妙法蓮華經」, 성종 1년(1470)본의 「妙法蓮華經」, 己和가 說誼한 중종 32년(1537)본의 翻刻本 「金剛般若波羅密經」, 단종 1년(1453) 花岩寺本의 「地藏菩薩本願經」, 명종 12년(1557)본과 명종 19년(1564)의 「大方廣佛華嚴經疏」, 세조 7년(1461) 乙亥字와 한글 활자가 혼용되어 간행된 「楞嚴經」 이 귀중본에 속한다. 儀式儀禮集은 성종 19년(1488)본의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인조 21년(1643) 鳳停寺에서 간행된 雲水壇歌詞 등의 자료가 대표적 판본이다. 僧侶 文集 중에는 광해군 4년(1612) 초간본인 「四溟堂大師集」, 경종 4년(1724) 순친 송광사 후쇄본인 無用堂遺稿 등이 대표적 판본에 속한다. 韓國 撰述類 중에서는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牧牛子修心訣(診解)」, 중종 20년(1525) 大光寺本 誠初心學人文」, 세종 32년(1450)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이 귀중본에 해당된다. 蒙山德異本 중에서는 성종 3년(1472)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蒙山和尚法語略錄(診解)」, 중종 34년(1539) 廣興寺본의 「蒙山和尚六道普說」과 초간본 德異本의 번각본으로 명종 13년(1558)에 간행한 「六祖大

* SK C&C Industry 사업개발팀 과장(hye02g@hanmail.net)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8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8일

師法寶壇經 이 귀중본에 해당한다.

要語: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地藏菩薩本願經, 大方廣佛華嚴經, 楞嚴經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details and constitutions of the Buddhist books collected by Kim Min-Young,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genealogies of each edition for 388 volumes of 272 titles with the records of publication out of 1,292 volumes of 734 titl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im Min Young had collected the Buddhist books through Tongmungwan since the late 1960s, and so far through Hogodang, Munwuseolim and so forth.

Second, his collection of the Buddhist books consists of the scriptures(224 volumes of 126 titles), the Buddhist ceremonial books(52 volumes of 49 titles), the Buddhist monk anthologies(51 volumes of 46 titles), Korean Buddhist works(44 volumes of 34 titles), and Meng-shan Te-i's writings(17 volumes of 17 titles).

Third, among the scriptures, valuable editions include *Myopopyunhwakyung* which is the reprinted edition of Munsusa-bon in the 17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1417), *Geumkangbanyabaramilkyung* (*Ogahae*)(*Seolui*) in the 32nd year of King Jungjong's reign(1537) interpreted by Gihwa, *Jijangbosalbonwonkyung* in the 1st year of King Danjong's reign(1453), *Daebangguwangbulhvaeumkyung* in the 12th year(1557) and 19th year(1564) of King Myeongjong, and *Neungumkyung(Unhae)* published with Ulhae-ja and Hangul movable types in the 7th year of King Saejo(1461). Valuable editions in the ceremonial books include *Sanggyojeongbonjabidoryangchambeob* in the 19th year of King Seongjong(1488) and *Unsudangisa*, Bongjeongsa-bon published in the 21st year of the King Injo(1643). Among the monk collections, *Samyeongdangdaesajib* first printed in the 4th year of King Gwanghae(1612) is the most valuable. Among Korean buddhist works, *Mokwojasoo-shimgyul(Unhae)* in the 13th year of King Saejo(1467), *Gyechosimhakinmoon* published at Daegwangsa, Suncheon in the 20th year of King Jungjong(1525), *Hamheodangdeuktong-hwasanghyeongjeongron* printed at Chojugapinja in the 32nd year of King Saejong(1450) are the valuable editions. Among Mongsan Toki-bon, the edition of *Mongsanhwasangbeobeoyakrok (Unhae)* published at Gangyeongdogam in the 3rd year of King Seongjong(1472), the Gwangheungsa-bon of *Mongsanhwasangyookdoboeseol* in the 34th year of King Jungjong (1539), and *Yookjodaesabeobbodankyung* reprinted in the 13th year of King Myeongjong(1558) from the first edition of Toki-bon are valuable editions.

Key words: *Myopopyunhwakyung*, *Geumkangbanyabaramilkyung*, *Jijangbosalbonwonkyung*, *Daebangguwangbulhvaeumkyung*, *Neungumkyu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김민영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40여년간 고서점을 통하여 1,036종 2,034책의 장서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서는 734종 1,292책으로 그가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장서 중 개인문고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는 불서들 중에서는 다른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귀중본 자료들이 151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는 고려본과 조선 초기에 간행된 목판본 및 금속활자본이 포함되어 있다.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의 經典類와 儀式儀禮集, 僧侶 文集, 韓國 撰述類, 蒙山 德異本 자료의 판본들을 계통적으로 비교·조사하여 수집하였으며, 僧侶 文集의 경우에는 한국 불교의 계보에 관심을 두고 직접 승려 계보를 정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김민영 개인문고의 전적을 조사하여 經典類를 포함한 불서에 대한 가치와 특성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儀式儀禮集, 僧侶 文集 및 韓國 撰述類에 대한 연구가 불교사적인 관점에서는 이루어졌을 뿐, 서지학적 측면에서는 연구된 사례가 없다. 또한, 개인문고를 대상으로 한 일반 고서와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불서의 성격을 밝히는 서지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판본에 관한 실물자료의 방증 및 전적조사를 종합하여 김민영 소장 불서자료의 수집경위와 장서구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소장 불서를 經典類, 儀式儀禮集, 僧侶 文集, 韓國 撰述類, 蒙山 德異本으로 나누어 각 판본의 특징 및 계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중 불서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1,036종 2,034책 중에서 불서 734종 1,292책을 대상으로 하여 김민영 소장 불서의 수집경위와 장서구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불서 734종 1,292책에서 대표집서군이 될 만한 5개의 주제 영역, 經典類, 儀式儀禮集, 僧侶 文集, 韓國 撰述類, 蒙山德異本으로 나누어 有刊記 자료 272종 388책을 선정하였고, 간행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 1910년 이후 간행본, 중국 및 일본 간행본, 필사본, 복본 등 462종 904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간행기록이 있는 272종 388책에 대하여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일차 자료로 하여 여러 문헌과 실물 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분석 대상 272종 388책을 經典類 126종 224책, 儀式儀禮集 49종 52책, 僧侶 文集類 46종 51책, 韓國 撰述類 34종 44책, 蒙山德異本 17종 17책으로 세분하고 계열별 및 시대별로 나누어 판본의 특징 및 자료의 성격을 분석 하였다.

2. 김민영 소장 불서의 수집경위와 장서구성

2.1 수집경위

김민영¹⁾이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불서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裕昌德 서점을 통해 대만에서 발행되는 보급판 불서들을 구해서 공부하였고, 이후에는 인사동의 고서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간행된

1) 김민영은 1946년 3월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다. 그는 태고종 초대 종정인 默潭聲祐 스님의 遺髮상좌로, 法名은 法眼이다. 현재 부산상호저축은행 부회장과 부산2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고서들을 수집하였다. 經典類는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地藏菩薩本願經」, 「大方廣佛華嚴經」, 「楞嚴經」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儀式儀禮集은 靈魂遷度儀禮集, 常用儀禮集, 禮懺儀禮集, 喪葬儀禮集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僧侶의 文集은 선가의 승보를 작성하고 17세기부터 18세기에 활동한 승려들을 중심으로 淸虛休靜系와 浮休善修系의 文集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韓國 撰述類는 知訥, 慧謨, 休靜, 己和의 禪書들을 구입하였고, 고려승들과 교류했던 蒙山德異本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불서의 계통별 수집은 불교분야의 장서구성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컬렉션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김민영이 불서를 수집한 경위를 시기별·서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단계로 川老解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을 비롯한 經典類 11종과 光武 5년(1901)에 全史字로 간행한 「七衆受戒儀軌」 등 儀式儀禮集 4종으로 15종(2%)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시기의 불서 수집은 山氣 李謙魯가 운영하던 通文館을 통해서 구입하였다. 通文館은 1934년 3월 개점한 이후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오래된 고서점이다.

둘째, 1980년대에는 불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가 소장하고 있는 전체 불서의 50%이상을 구입하였다. 그 중 經典類가 175종으로 전체 불서의 23%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표적인 자료에는 「妙法蓮華經」의 세종 4년(1422) 大慈菴本과 세종 25년(1443) 花岩寺本이 있다. 이외에도 儀式儀禮集 50종(6.8%), 僧侶 文集 28종(3.8%), 韓國 撰述類 12종(1.6%), 蒙山德異本 13종(1.8%), 기타자료 101종(13.8%)으로 총 379종(51.6%)이다. 이 시기에는 여러 서점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갑이 1979년 7월 인사동에 개점한 好古堂에서의 자료 구입이 109종(14.9%)으로 가장 많으며, 通文館 87종(11.9%), 新文館 69종(9.4%), 古文堂 65종(8.9%), 한국서적 24종(3.2%), 文古堂 9종(1.2%), 기타 16종(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 經典類와 儀式儀禮集類, 蒙山德異本類의 수집은 감소하고 僧侶 文集과 韓國 撰述類의 수집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본으로 성종 17년(1486) 圭峰菴에서 간행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文友書林 72종(9.8%), 好古堂 69종(9.4%)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구입이 이루어졌고, 古文堂 19종(2.6%), 新文館 13종(1.8%), 文古堂에서 11종(1.5%), 기타서점의 그룹에 속해 있는 永昌書店, 연고재와 고서중개인을 통해 일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넷째,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經典類, 僧侶 文集, 韓國 撰述類, 蒙山德異本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의 수집은 1990년대부터 그의 자료수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文友書林을 통하여 구입이 이루어졌다. 文友書林은 檀岑 金榮福이 1990년 3월에 通文館에서 독립하여 새롭게 단장한 고서점이다. 김민영은 장서수집의 초기부터 檀岑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불서 수집 경위를 시기별·서점별로 나타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소장 불서의 시기별 수집현황

단위 : 종(%)

시기 자료구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2006년	합계
경전류	11(1.5)	175(23.8)	54(7.4)	41(5.6)	281(38.3)
의식 의례집	4(0.5)	50(6.8)	21(2.9)		75(10.2)
승려문집		28(3.8)	54(7.4)	16(2.2)	98(13.4)
한국 찬술류		12(1.6)	33(4.5)	11(1.5)	56(7.6)
몽산 덕이본		13(1.8)	4(0.5)	4(0.5)	21(2.8)
기타자료		101(13.8)	52(7.1)	50(6.8)	203(27.7)
합계	15(2.0)	379(51.6)	218(29.8)	122(16.6)	734(100.0)

※ 기타자료는 간행년도미상, 1910년 이후 간행본, 중국 및 일본간행본, 필사본, 복본 등이다.

<표 2> 소장 불서의 서점별 수집 현황

단위 : 종(%)

시기 서점구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2006년	합계
고려사				7(1.0)	7(1.0)
고문당		65(8.9)	19(2.6)		84(11.5)
문고당		9(1.2)	11(1.5)		20(2.7)
문우서림			72(9.8)	81(11.0)	153(20.8)
신문관		69(9.4)	13(1.8)		82(11.2)
진명사				4(0.5)	4(0.5)
통문관	15(2.0)	87(11.9)			102(13.9)
한국서적		24(3.2)			24(3.2)
호고당		109(14.9)	69(9.4)		178(24.3)
기타서점		16(2.1)	34(4.7)	30(4.1)	80(10.9)
합계	15(2.0)	379(51.6)	218(29.8)	122(16.6)	734(100.0)

※ 기타서점은 미도민속관, 코베이, 금요고서, 담양, 영창서점, 연고재, 범우사, 장보고 및 고서증개인 등이다.

2.2. 장서구성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는 불서는 전체 장서 1,036종 2,034책 중에서 734종 1,292책으로 전체 장서의 71%이다. 그 중 분석대상이 되는 有刊記 자료가 272종 388책이다. 이를 대표불서군별 및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典類는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地藏菩薩本願經」, 「大方廣佛華嚴經」, 「楞嚴經」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세기 간행본 3종 4책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간행본까지 126종 224책이다. 이 중에서 17세기에 간행된 「妙法蓮華經」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태종 17년(1417) 高敞 文殊寺 「妙法蓮華經」 翻刻本, 효종 2년(1651)의 後印本 「地藏菩薩本願經」 등이 김민영 장서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판본이다.

둘째, 儀式儀禮集은 靈魂遷度儀禮集, 常用儀禮集, 禮懺儀禮集, 喪葬儀禮集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세기 간행본 1종 1책과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간행본 49종 52책이 있다. 이 중 靈魂遷度儀禮集이 30종 32책으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시기별로는 주로 17세기의 간행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장본 중 성종 21년(1490) 慈悲嶺寺本과 중종 15년(1520) 淸涼寺本の 「水陸無遮平等齋依撮要」은 귀중본에 속한다.

셋째, 僧侶 文集은 淸虛休靜系의 文集 35종 40책과 浮休善修系의 文集 11종 11책이 있다. 17-18세기의 간행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광해군 4년(1612)본의 「四溟堂大師集」과 인조 26년(1648)본의 「奇巖集」, 경종 4년(1724) 순천 송광사의 후쇄본인 「無用堂遺稿」이 대표적인 자료이다.

넷째, 韓國 撰述類는 知訥, 慧謚, 休靜, 己和의 撰述類와 기타 저자들의 撰述類로 이루어져 있다. 34종 44책 중에서 知訥의 撰述類가 15종 15책으로 가장 많고, 16세기에서 17세기의 간행본이 25종 33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세조 13년(1467)의 간행본 「牧牛子修心訣(諺解)」과 중종 20년(1525) 順天大光寺本の 「誠初心學人文」이 귀중본에 속한다.

다섯째, 蒙山德異本은 「蒙山和尚法語略錄」, 「蒙山和尚六道普說」, 「六祖大師法寶壇經」으로 이루어졌으며, 16세기 간행본 12종 12책을 비롯하여 14세기 간행본 1종1책, 15세기 간행본 2종 2책, 19세기 간행본 2종 2책의 17종 17책이다. 이 중에서 성종 3년(1472)의 간행본 「蒙山和尚法語略錄」은 보물 제10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불서의 대표불서군 · 시기별 현황

대표불서군	시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초	합계
경전류	묘법연화경		1종 2책 1종 1책	18종 22책	18종 28책	28종 28책	2종 8책	1종 5책		68종 93책
	금강변10비리인명경		1종 1책	4종 5책	7종 11책	4종 4책	2종 3책	2종 3책	3종 3책	21종 27책
	지장보살문원경			2종 2책	2종 2책	6종 6책	2종 2책	2종 2책		14종 14책
	대방광불화엄경 능엄경		1종 1책 3종 4책	5종 5책 25종 29책 3종 3책	1종 1책 27종 78책 13종 14책 1종 1책	5종 14책 50종 71책 10종 10책 8종 8책	5종 15책			12종 71책 11종 19책
의식 의례집	소계						13종 29책	5종 10책	3종 3책	126종 224책
	영호친도의례집						4종 5책			30종 32책
	상통의례집	1종 1책					2종 2책	2종 3책	2종 2책	16종 17책
	예향의례집 상통의례집					1종 1책 1종 1책	1종 1책			2종 2책 1종 1책
승려 문집	소계	1종 1책		3종 3책	14종 15책	20종 20책	7종 8책	2종 3책	2종 2책	49종 52책
	청허훈정계				1종 1책	13종 13책	11종 16책	9종 9책	1종 1책	35종 40책
	부록신수계					2종 2책	5종 5책	4종 4책		11종 11책
	소계			2종 2책	1종 1책	15종 15책	16종 21책	13종 13책	1종 1책	46종 51책
한국 찬술류	지눌의 선사				5종 5책	6종 6책	1종 1책	1종 1책		15종 15책
	혜심외의 선사				1종 1책	3종 11책				4종 12책
	휴경의 선사			1종 1책	4종 4책	4종 4책				4종 4책
	기화외의 선사				2종 2책		4종 6책			5종 5책
몽산 역이문	기타저자의 선사			3종 3책	12종 12책	13종 21책	5종 7책	1종 1책		6종 8책
	소계			1종 1책	3종 3책	3종 3책				34종 44책
	몽산화상법어인본									4종 4책
	몽산화상종도보석			1종 1책	3종 3책	6종 6책				6종 6책
합계	목조대사법보단경		1종 1책	2종 2책	12종 12책			2종 2책		7종 7책
	소계	1종 1책	4종 5책	33종 38책	66종 118책	98종 127책	41종 65책	23종 29책	6종 6책	272종 388책

3. 김민영 소장 불서의 분석

3.1 經典類

3.1.1 妙法蓮華經

3.1.1.1 成達生書體系列의 妙法蓮華經

成達生書體系列은 成達生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태종 5년(1405), 세종 4년(1422), 세종 25년(1443)에 간행된 원본과 태종 17년(1417)부터 인조 27년(1649)까지의 번각본 26종 28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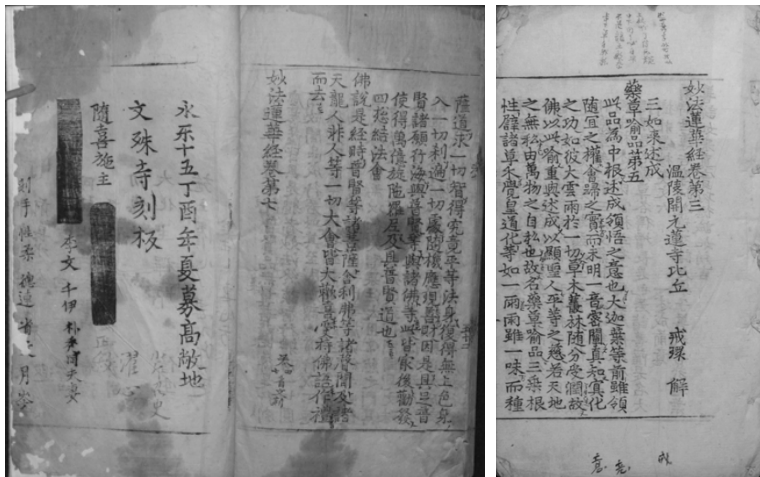
첫째, 成達生書體系列의 원본 중에서 태종 5년(1405) 安心寺本은 跋文에 의하면, 조계종대선 信希 등이耆老들을 위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中字로 간행하기를 원했는데 成達生·成概 형제가 喪中에 이를 듣고 先君의 追福을 위해 필사한 것을 信文이 간행한 것이다.²⁾ 세종 4년(1422) 大慈菴本은 誠寧大君과 元敬王后의 명복을 빌고자 발원한 것으로 成達生과 成概가 본문을 필사하였다. 권수에는 변상도는 중자 범화경의 변상도로 가장 많이 판각된 도상이다.³⁾ 세종 25년(1443) 花岩寺本은 惠信의 주도하에 成達生, 成概, 曹棫이 분담하여 필사한 것을 信孝 등 14명이 동원되어 판각하고 尙闇이 교정을 담당하였다.

둘째, 번각본으로는 태종조 간행본, 세종조 간행본, 중종조 간행본, 인종조 간행본, 명종조 간행본, 선조조 간행본, 인조조 간행본이 있다. 그 중 태종 17년(1417) 文殊寺本은 태종 5년(1405)의 번각본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처음 소개되는 판본으로 유일본에 해당된다(그림 1 참조).

2) 妙法蓮華經 太宗 5년(1405) 跋

「今曹溪宗大選信希等…欲以中字繕寫刊行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者…前大護軍成君達生時喪嚴君…欲爲先君追福及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道雲梯縣兜率山安心社」.

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佛書를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김민영 소장 귀중불서 특별전」 (서울: 동국대학교, 2007), 72.



<그림 1> 太宗 17年(1417) 文殊寺 刊行的 妙法蓮華經 翻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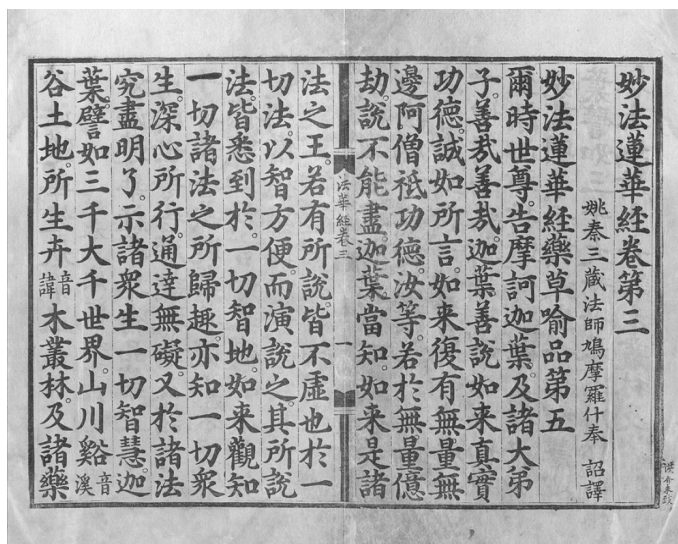
세종조 간행본 중 세종 30년(1448)본은 孝寧大君과 安平大君이 功德과 勸善을 위해 발원한 것이다. 卷7 끝에 안평대군의 手書 발문이 있어 책의 간행경위와 그의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종 1년(1545) 安心寺本, 명종 14년(1559) 烟峰寺本, 선조 37년(1604) 能仁菴本, 인조 27년(1649) 通度寺本은 세종 25년(1443) 花岩寺本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고, 명종 16년(1561) 喜方寺本은 성종 8년(1477)에 韓繼禧가 주관하여 간행하였던 花岩寺翻刻本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선조 8년(1575) 長安寺本은 명종 즉위년(1545)에 表訓寺本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판본으로 表訓寺本을 근간으로 하였지만, 내용은 선조 5년(1572)에 法淨 스님이 교정한 교정본에 근거하고 있다.

3.1.1.2 貞喜王后系列의 妙法蓮華經

貞喜王后系列은 貞喜王后가 주관한 大字本으로 성종 1년(1470)본을 비롯하여 번각본인 인조조 간행본 5종 5책, 효종조 간행본 2종 2책, 현종조 간행본 8종

8책, 숙종조에 간행본 2종 2책으로 모두 18종 20책이 있다. 그 중 성종 1년(1470) 본은 7권 3책의 완질본이며, 서책의 난외에 張莫同, 崔今同 등 각수명이 있고, 본문에는 傍點이 있다. 판본의 상태는 양호하다(그림 2참조).



<그림 2> 成宗 1年(1470) 刊行의 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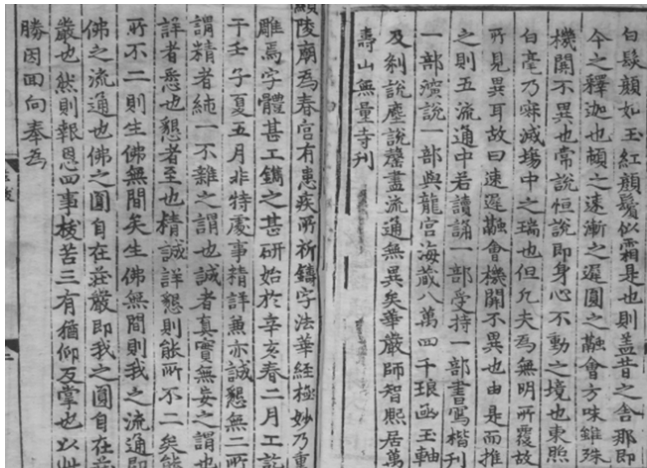
효종 5년(1654) 長波寺本은 판본상태가 좋지 않다. 현종 5년(1664) 興國寺本의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변상도를 새긴 각수명과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⁴⁾ 현종 6년(1665) 普門寺本의 변상도는 여러 가지 도상이 모여서 하나의 판화를 이루고 있으며, 법화경 권수판화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독특하다.

4) 妙法蓮華經 顯宗 5年(1664) 卷首 變相圖 刊記 및 刻手
刊記：順治三年丙戌(1646)開刊, 刻手：一昱.

3.1.1.3 活字本系列의 妙法蓮華經

活字本系列의 「妙法蓮華經」은 세종 말기와 세조 초기의 甲寅字 간행본과 乙亥字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본들로 15종 23책이 있다

첫째, 甲寅字系列의 번각본에는 성종 24년(1493)본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의 간행본이 있다. 성종 24년(1493) 無量寺本은 세종 32년(1450)의 初鑄甲寅字本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卷7의 끝부분에 金悅鄉의 발문에 의거하면,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주자로 찍은 「妙法蓮華經」이 있었는데 판이 極妙하여 이를 저본으로 重雕하였다고 한다(그림 3 참조).⁵⁾ 조선 후기 간행본에는 중종 26년(1531) 八公山本寺本, 선조 6년(1572) 鷲岩寺本, 선조 21년(1588)본, 선조 40년(1607) 松廣寺本, 인조 13년(1635) 大興寺本, 인조 27년(1649) 開興寺本, 현종 1년(1660) 雙溪寺本, 숙종 11년(1685) 安國寺本, 영조



<그림 3> 成宗 24年(1493) 無量寺 刊行의 妙法蓮華經 翻刻本

5) 妙法蓮華經 成宗 24年(1493) 卷7末 金悅鄉 跋文

「…顯陵廟爲春宮 有患疾所祈鑄字法華經極妙乃重彫焉自體甚工鐫之甚研始於辛亥(1491)春二月 工訖壬子(1492)夏五月…」.

4년(1728) 仙岩寺本이 있다. 그 중 중종 26년(1531)본은 卷1~7의 완결본이며, 16~17세기의 여러 번각본들 중에서 초기 판본으로 여겨진다. 선조 40년(1607)본은 선조 16년(1583)에 崇印선사가 간행하여 유통시킨 판본이 있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불타버리고 80판이 낙질이 되었다. 이를 曇玄의 발원으로 松廣寺에서 여러 경전을 대조하여 舊藏遺板中缺板 160장을 補充印出한 것이다.

둘째, 乙亥字系列의 번각본에는 인조 2년(1624)본과 숙종 12년(1686) 후쇄본이 있다. 숙종 12년(1686) 후쇄본은 인조 9년(1631)에 水巖寺에서 중간한 판본을 숙종 12년(1686)에 金⁶⁾聖의 주도하에 후쇄한 것이다.

3.1.1.4 기타 계열의 판본

기타 계열의 판본으로는 黃振孫書體系列과 木板本, 간경도감본의 번각본, 松廣寺 音譯本, 木活字本으로 9종 22책이 있다.

첫째, 黃振孫書體系列에는 세종 25년(1443) 花岩寺本과 선조 19년(1586) 興福寺本이 있는데, 花岩寺本은 卷1~3이고, 興福寺本은 卷3~4로 두 판본의 卷3 끝부분에 黃振孫書體라고 판각되어 있어 黃振孫書體系列임을 알 수 있다. 둘째, 木板本에는 정종 1년(1399)본, 중종 32년(1537) 普光寺本, 명종 10년(1555) 廣德寺本, 선조 15년(1582) 烟觀寺本이 있는데, 그 중 정종 1년(1399)본은 7권 2책의 완결본이며, 鄭天益, 李穡 등 여러 관리와 일반 서민들로부터 시주를 얻어 태조 7년(1398)에 간행에 착수하여 정종 1년(1399)에 완성된 細小字本이다.

셋째, 간경도감본의 번각본으로 인종 1년(1545)에 性默, 仁沽가 주도하여 羅州 雙溪寺에서 간행한 卷1이 있다.

넷째, 松廣寺 音譯本에는 杆詢의 주도하에 정조 20년(1796)에 판각을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완성된 정조 23년(1799)본이 있다.

다섯째, 木活字本에는 고종 13년(1876) 寶晶社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6) 판독불가인 한자를 ‘■’로 표시함. 이하 동일.

3.1.2 金剛般若波羅密經

3.1.2.1 金剛般若波羅密經의 漢譯本

「金剛般若波羅密經」의 漢譯本은 고려 우왕 4년(1378)본을 비롯하여 조선조 간행본 10종 11책이 있다. 그 중 우왕 4년(1378)본은 판식의 형태는 고려본이지만, 판각 상태가 좋지 않고, 補刻이 들어 있어 고려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왕 4년(1378)본을 重刊한 補刻의 후쇄본이다. 조선시대 간행본으로는 선조 3년(1570) 廣興寺本, 광해군 10년(1618) 松廣寺本, 숙종 10년(1684) 佛影臺本, 숙종 44년(1718) 華嚴寺本, 영조 16년(1740) 鑒藏菴本, 영조 22년(1746) 雲門寺本, 순조 27년(1827) 明寂寺本, 순종 2년(1908) 간행본이 있다. 그 중 숙종 10년(1684)본은 達磨笈多의 역본이며, 나머지는 모두 鳩摩羅什의 역본이다. 영조 22년(1746)본은 세조 6년(1424)에 간행된 成達生書의 필서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으로 종래의 판식인 무계, 무어미에서 유계, 흑구, 내향흑어미로 변화였다. 순종 2년(1908)본은 음역한 판본으로 姜在禧의 印施로 500권을 간행한 판본 중 하나이다.

3.1.2.2 金剛般若波羅密經의 註釋書 및 諺解本

「金剛般若波羅密經」에 대한 註釋書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說誼)와 「金剛般若波羅密經」(川老解),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이 있고, 「金剛般若波羅密經」의 諺解本과 「金剛經正解」이 있다.

첫째,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說誼는 鳩摩羅什 漢譯本에 傳大士, 六祖, 圭峰, 冶父, 宗鏡 등의 五家が 주석을 붙이고 涵虛己和가 說誼한 것이다. 김민영 소장본으로는 중종 32년(1537) 身安寺本(그림 4 참조), 광해군 13년(1621) 雙峯寺本, 인조 13년(1635) 龍藏寺本, 숙종 7년(1681) 간행본이 있다. 이 판본들은 세조 3년(1457)에 본문의 큰자는 丁丑字로, 주석의 중간자와 작은자는 甲寅字로 인출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되었다.



<그림 4> 中宗 32년(1537) 身安寺 刊行的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 翻刻本

둘째, 「金剛般若波羅蜜經」(川老解)는 宋나라 승려 川老가 「金剛般若波羅蜜經」을 주석하고 頌을 붙인 것이다. 洪宰가 필사하고 正安이 판각하여 應熙 3년(1909)에 간행한 판본이 있다.

셋째,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은 唐나라 圭山宗密의 疏論에 宋나라 子璿의 刊定記를 行策이 會編한 것이다. 김민영 소장본에는 10권 5책본과 2권 1책의 零本이 있다. 그 중 10권 5책본은 중국 淸板을 판하본으로 하여 숙종 12년(1686) 澄光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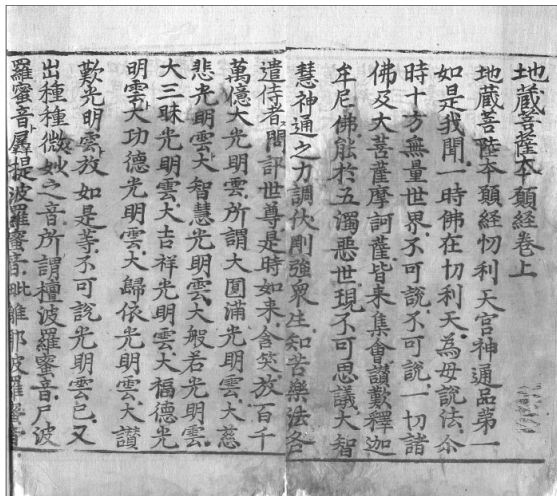
넷째, 「金剛般若波羅蜜經」의 諺解本은 明종 20년(1565) 無量寺本이 있는데, 이 판본은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다섯째, 「金剛經正解」은 龔概綵가 註釋을 붙이고 扈正智가 교정을 하여 고종 20년(1883) 甘露社에서 全史字로 간행한 것이다.

3.1.3 地藏菩薩本願經

3.1.3.1 花岩寺本の地藏菩薩本願經

단종 1년(1453) 花岩寺本은 卷下가 없는 零本이며, 고려의 절첩본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한 것이다. 이 판본에는 시주자명에 대한 기록이 낙장되어 있어 동일판본을 통해서 空菴이 필사하여 義明이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⁷⁾ 글씨체가 선명하고, 판각상태가 양호하여 초인본과 같은 느낌을 준다(그림 5 참조).



見性寺本の 翻刻本으로는 광해군 2년(1610) 南長寺本, 인조 1년(1623) 南高寺, 인조 2년(1624) 후인본, 효종 2년(1651) 連高寺本の 4종이 있다. 판본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광해군 2년(1610)본은 현재까지 판목 39板이 남아 있어서 그 진모를 볼 수 있다.⁸⁾ 인조 2년(1624)본은 광해군 4년(1612) 松廣寺에서 간행하여 留板했던 것으로, 인조 2년(1624)에 金精信이 靈原君 申景植의 尊靈을 위해 印經한 것이다.⁹⁾

3.1.3.3 無量寺本の 翻刻本 地藏菩薩本願經

성종년간(1470~1479)에 간행된 無量寺本을 저본으로 하여 명종 13년(1558) 石頭寺, 선조 7년(1574) 雙峰寺, 정조 21년(1797) 碧松庵에서 번각한 판본이다. 이 판본의 계열은 권수부분에 「志心歸命體 과 「開經偈 , 「開法藏眞言 이 있고, 쌍행으로 구결을 표시하였다. 그 중 선조 7년(1574)본은 口訣의 표기에 있어서 ㄴ → 又, 時 → 示 등 일부 글자가 약체형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고, 정조 21년(1797)본은 「志心歸命體」이 없고, 「慧月禪師」의 서문이 있어 저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1.3.4 音譯本 및 諺解本の 地藏菩薩本願經

音譯本에는 정조 15년(1791) 松廣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는데, 한글음이 함께 판각되어 있어 「音譯地藏經 이라고도 한다. 이 판본의 卷上의 권수제에는 ‘지장보살본경’, 卷中에는 ‘디장보살본원경’, 卷下에는 ‘지장보살본원경’으로 동일자의 음역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음역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諺解本에는 고종 16년(1879)에 寶晶社에서 간행한 판본이 있다. 한글 언해본으로 고경당 대원이 해설하고, 환명이 필사한 것이다.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8) 朴相國, 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277-278.

9) 地藏菩薩本願經 [光海君 2年(1612)刻 仁祖 2年(1624)後印] 墨書識記

「天啓四年甲子(1624)正月日 金氏靜信伏爲靈原君申景植尊靈地藏經一件造成功德以佛神力往生極樂國」.

寶晶社本으로 알려진 변상도와는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3.1.3.5 기타 계열 판본

기타 계열의 판본으로는 효종 2년(1651)의 후인본과 효종 3년(1652) 德周寺本, 철종 12년(1861) 奉恩寺本이 있다. 효종 3년(1652)본은 구결본이지만, 無量寺本의 번각본과는 형태적으로 다른 계열이며 체제와 표기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철종 12년(1861)본은 본문 중간에 補瀉한 흔적이 있고, 판본 상태가 좋지 않다.

3.1.4 大方廣佛華嚴經

3.1.4.1 大方廣佛華嚴經의 漢譯本

漢譯本에는 숙종 32년(1706) 遠願寺本과 영조 12년(1736) 桐華寺本 2종이 있다. 이 두 판본은 般若가 번역한 40권본이고, 모두 8행 17자 계통의 판본이다.

3.1.4.2 大方廣佛華嚴經의 註釋書

註釋書에는 「大方廣佛華嚴經疏」과 「大方廣佛華嚴經疏鈔」, 「華嚴懸談會玄記」 10종 69책이 있다.

첫째, 「大方廣佛華嚴經疏」은 명종 12년(1557)본, 명종 17년(1562)본, 인조 13년(1635)본이 있다. 그 중 명종 12년(1557)본과 명종 17년(1562)본은 본래 명종 11년(1566)부터 명종 19년(1564)에 걸쳐 간행한 120권본이며, 황해도 歸進寺를 중심으로 奉恩寺, 月精寺 등 21개의 사찰에서 舍心하여 造板한 것의 일부이다(그림 6 참조). 인조 13년(1635)본은 卷10~12, 52~54, 64~66의 9卷 3冊의 零本이며, 인조 11년(1633)부터 인조 13년(1635)까지 順天 松廣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둘째, 「大方廣佛華嚴經疏鈔」은 숙종 15년(1689)본, 영조 50년(1774)본, 정조

1년(1777) 實相寺本이 있다. 그 중 속종 15년(1689)본은 7권 7책으로 栢庵性聰에 의하여 판각되어진 것의 일부분이다. 영조 50년(1774)본은 內院精舍와 臺岩精舍에서 간행한 것이 있다. 이 판본은 澄光寺板의 화제로 경판이 소실되어 雪坡尙彦이 靈覺寺를 중심으로 영조 49년(1773)부터 영조 51년(1775)까지 3년에 걸쳐 번각한 것을 重刊한 것이다.¹⁰⁾



<그림 6> 明宗 12年(1557) 歸進寺 刊行의 大方廣佛華嚴經疏

셋째, 「華嚴懸談會玄記」은 元나라 普瑞가 澄觀의 「華嚴懸談」에 주석을 붙인 40권본이다. 김민영 소장본에는 간행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동국대학교 소장본, 송광사 정보박물관과 직지사 소장본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민영 소장본은 성종이 숙종 21년(1695)에 간행한 雙溪寺本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3.1.5 楞嚴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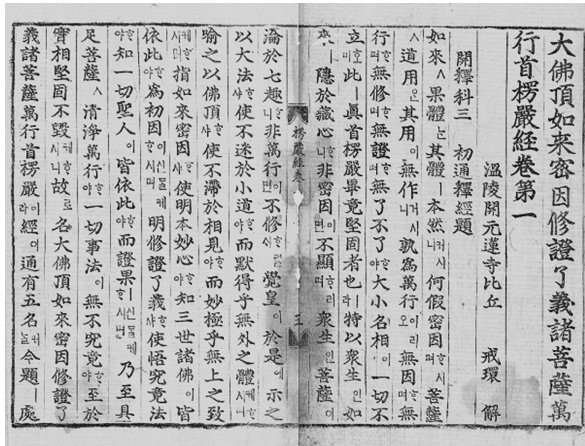
「楞嚴經」에는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간행된 판본의 후인본을 비롯하여

10) 李賢子, “直指寺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城大學校 大學院, 2003).

조선조에 간행된 판본 11종 19책이 있다.

첫째, 고려 공민왕 21년(1372)의 후인본은 安城 靑龍寺에서 작은 글자로 板書本을 써서 개판한 것 중, 卷6~10이다.¹¹⁾

둘째, 조선조 간행본에는 세조 7년(1461)본, 성종 19년(1488)본, 성종 24년(1493)본, 명종 2년(1547)본과 현종 13년(1672)본이 있다. 세조 7년(1461)본은 諺解本이며, 乙亥字와 竝用한글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卷1과 卷3이 있으며, 卷1은 보물 제1520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7 참조).¹²⁾ 卷3은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판본상태가 양호하고, 글자체가 선명하여 귀중본이라 할 수 있다. 성종 24년(1493)본은 성종 19년(1488) 無量寺에서 간행된 판본에 金悅卿의 跋文을 붙여 後印한 것이다. 명종 2년(1547) 石頭寺本과 현종 13년(1672) 雲興寺本은 모두 卷1~10의 완질본이다



<그림 7> 世祖 7年(1462) 刊行(보물 제1520호)의 楞嚴經(諺解) 乙亥字 竝用한글字本

11) 楞嚴經 恭愍王 21年(1372) 卷10 末 跋文

「洪武五年壬子十月 日 苾芻卽了跋 功德主大將軍 金瑚 靈岩郡夫人崔氏 同願貞順翁主 李氏 安城靑龍寺刊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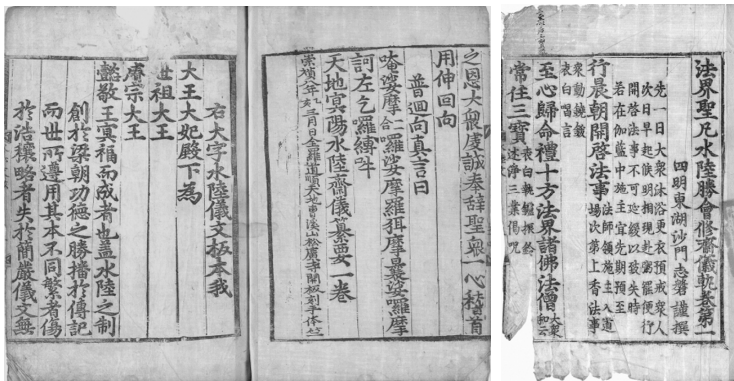
12) 문화재청 홈페이지. [cited 2007. 4. 25].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2,15200000,31&queryText=\('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in>z_title](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2,15200000,31&queryText=('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in>z_title)>.

3.2 儀式儀禮集

3.2.1 靈魂遷度儀禮集

靈魂遷度儀禮集은 조선 초기 불교식 國喪祭였던 水陸齋와 관련된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薦度齋 法式의 하나인 施食 및 豫修齋와 관련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록재와 관련된 자료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종, 「水陸無遮平等齋依撮要」 6종, 「天地冥陽水陸雜文」 2종,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2종,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7종의 총 18종이 있다. 그 중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은 성종 1년(1470)에 朴耕에게 필사하게 하여 간행하게 한 大字本¹³⁾을 저본으로 하여 인조 13년(1635)에 順天 松廣寺에서 體竺에게 번각하게 한 것이다¹⁴⁾(그림 8 참조).



<그림 8> 仁祖 13年(1635) 龍藏寺 刊行의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翻刻本

13)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仁祖 13年(1635) 卷末 金守溫 跋文 大王大妃殿下爲世祖大王睿宗大王懿敬王 冥福而成者也…大王大妃殿下 特命刊於志磐文且使臣朴耕更寫大楷…成化六年(1470)秋七月望前有日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臣金守溫奉教謹跋」.

1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仁祖 13年(1635) 卷末 刊記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刻手體竺」.

「水陸無遮平等齋依撮要」은 6종인데, 그 중 성종 14년(1483)본은 中臺寺本을 저본으로 하여 후대에 후쇄한 것이고, 나머지 5종은 그 시기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慈悲嶺寺本과 淸涼寺本은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판본이며, 龍藏寺本과 通度寺本은 같은 계열이지만 판본의 상태가 좋지 않다. 「天地冥陽水陸雜文」은 선조 5년(1572)본과 선조 14년(1581)본이 있는데, 선조 14년(1581)본은 선조 5년(1572)본에 비해 글씨획이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다.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은 숙종 35년(1709)에 谷城 道林寺에서 간행한 초간본과 경종 1년(1721) 楊州 重興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있다. 완질본이 아니라 卷下만 소장하고 있다.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은 숙종 35년(1709)에 간행될 때는 上·下 2권본으로 간행되었지만, 경종 1년(1721) 楊州 重興寺에서 간행한 판본은 月洲 子秀와 桂坡 聖能의 발문에 의거하여,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3권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3권본의 卷下 서명은 「三卷仔夔文五書夜作法規卷之下」이다.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은 6종으로 임란전후의 판본이다. 중종 24년(1529) 無量寺本은 조선조 초기의 판본을 후쇄한 것이고, 중종 33년(1538) 廣興寺本은 예종 1년(1469)에 三角山 道成庵에 두었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普願寺板과 普門寺板은 이 판본의 후쇄본이다.

둘째, 시식과 관련된 자료는 「大刹四明日迎魂施食儀文」 1종,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2종, 「禮念彌陀道場懺法」 3종으로 총 6종이 있다.

「大刹四明日迎魂施食儀文」은 영조 52년(1776)에 靈巖 美黃寺에서 重開刊한 것으로 海印寺本이 존재하지만, 간기가 확실하지 않아 연도가 있는 것으로는 유일한 판본이다.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성종 19년(1488)본과 영조 45년(1769)본이 있다. 이 중 성종 19년(1488)본은 성종 5년(1474) 秋八月에 쓴 金守溫의 발문과 그 경판에서 성종 19년(1488)에 인출한 후 붙인 乙亥字 後印跋이 있다. 이 발문에 의거하면, 성종 19년(1488) 7월에 성종의 계비인 貞顯王妃가 順淑公主의 천도를

15) 金純美,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동양한문학회연구』 17(2003), 27-67.

판본이다. 이 중 인조 17년(1639)본은 전존본이 드물다.

3.2.2 常用儀禮集

常用儀禮集은 일상의례와 수행의례를 함께 다루고 있는 제반의례집을 비롯하여 일상의례 및 수행의례에 관한 자료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제반의례집에는 「雲水壇歌詞」 4종, 「作法龜鑑」 1종, 「諸般文」 2종, 「請文」 3종의 총 10종이 있다. 그 중 「雲水壇歌詞」은 인조 21년(1643) 鳳停寺本, 인조 22년(1644) 龍興寺本, 효종 10년(1659) 棲鳳寺本, 현종 5년(1659) 海印寺本으로 4종이다. 인조조 간행본은 판각이 양호하고 드물게 보는 사찰판이고, 효종 10년(1659)본은 판각상태가 고르지 않다. 현종 5년(1664)본은 기존의 판본에서 인출하고, 부록의 「拈香式」과 「彌陀請」은 惠能의 필서 보각하였다.

「作法龜鑑」은 순조 26년(1826)에 白坡 巨璇(1767-1852)의 저술로 朴致維가 필사하고 순조 27년(1827)에 白羊山 雲門庵에서 간행하였다. 김민영 소장본에는 刊記가 없으나, 「作法龜鑑」 끝에 「看堂論」과 「靈山作法」이 추가되어 있어 四終本인 雲門寺本임을 알 수 있다.

「諸般文」은 休靜이 편찬한 「雲水壇」의 後身으로 선조 13년(1580) 瑞峰寺本(그림 10 참조)과 인조 25년(1647) 普賢寺本의 2종이 있다.

「請文」은 현종 11년(1670) 神興寺本과 숙종 45년(1719) 海印寺本, 영조 45년(1769) 鳳停寺本이 있는데, 숙종 45년(1719)본은 重刊한 것으로, 고종 20년(1883)에 「七聖請儀文」을 붙여서 다시 간행하였다.

둘째, 일상의례집에는 「戒殺放生文」 1종과 「受八戒齋文」 1종, 「七衆受戒儀軌」 1종이 있다. 그 중 「戒殺放生文」은 고종 29년(1892) 重刊本에 의거하여 東庵居士 姜在喜가 隆熙 2년(1908)에 5백권을 간행¹⁷⁾한 판본중의 하나로 판각상태가 양호하다.

17) 戒殺放生文 隆熙 2년(1908) 卷末 刊記

「壬辰(1892)秋重刊 隆熙二年戊申(1908)冬 東庵居士姜在喜印五百卷」.



<그림 10> 宣祖 13年(1580) 瑞峰寺 刊行的 諸般文

「受八戒齋文」은 고려 말에 이 판본을 입수하여 고려 말기에 번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誌文에 의하면, 翔玄子 李源歸가 관하본을 써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은 선본으로 불교의례 및 서지학 분야에서 활용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七衆受戒儀軌」은 光武 5년(1901)에 晦光禪師 有璿이 道峰精舍에 주석하면서 梵網經, 四分律, 沙彌戒, 受戒儀式의 合卷으로 全史字로 61부를 天鳳妙允의 5명의 주도하에 인출하여 배포한 것이다.

셋째, 修行의식에 관한 의례집으로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이 있는데, 孝宗 10년(1659) 雲門寺本과 숙종 6년(1680) 雲興寺本, 高宗 19년(1882) 海印寺本으로 3종이며, 서로 계통이 다른 판본이다. 高宗 19년(1882)본은 高宗 6년(1869)에 留板한 것인데, 高宗 19년(1882)에 海印寺에서 「茶毘文」을 판각할 때, 기존의 판에 12丈을 보판하여 增入한 것이다.¹⁸⁾

18)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高宗 19年(1882) 卷末

「上來十二丈板光緒八年壬午(1882)冬本寺茶毘文板刻時增入者」.

3.2.3 禮懺儀禮集

禮懺儀禮集은 禮敬과 懺悔의 행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포괄적인 의례집으로 「禪門祖師禮懺儀文」 현종 1년(1669) 符印寺本 1종, 「觀世音菩薩禮文」 영조 31년(1755) 大菴寺本 1종의 총 2종이 있다.

3.2.4 喪葬儀禮集

喪葬儀禮集은 불교식 喪禮·葬禮에 관한 것으로, 절차의 큰 변화 없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소장본으로는 현종 11년(1670) 通度寺에서 간행한 「僧家禮義文」 1종이 있다.

3.3 僧侶 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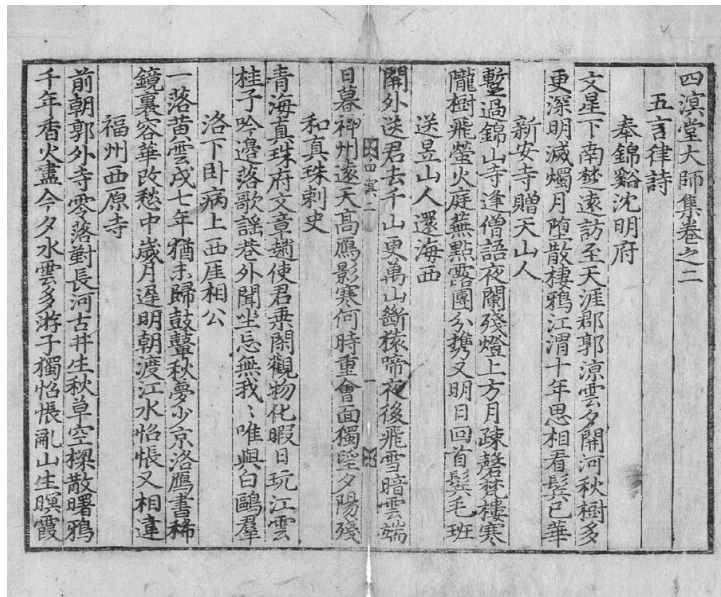
3.3.1 淸虛休靜系의 文集

淸虛休靜系는 淸虛休靜(1520-1604)에게 법계를 의탁한 승려들을 말하며, 16세기 후반부터 불교계의 주류로 대두하여 활동하였다. 소장본 중 淸虛休靜系의 文集에는 淸虛休靜(1520-1604)의 「三老行蹟」부터 11세대의 제자 師誠의 문집 「克庵集」까지 29명의 승려들의 문집 35종이 있다.

첫째, 休靜의 저작에는 「三老行蹟」, 「碧松堂野老行錄」, 「淸虛堂大師集」 및 「淸虛堂集」, 「續眞實珠集」이 있다. 그 靜이 스승인 중 「三老行蹟」은 休靜이 찬술한 碧松堂大師 智嚴, 芙蓉堂禪師 靈觀, 敬聖堂禪師 一禪의 저작을 모아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간행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休靜이 찬술한 것을 모아 후대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休靈觀과 一禪을 통해 碧松智嚴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休靜의 1세대 제자들의 문집에는 松雲惟政(1544-1610)의 「四溟堂大師

集」을 비롯하여, 詠月淸學(1570-1654)의 「詠月堂大師文集」, 奇巖法堅(1552-1634)의 「奇巖集」, 青梅印悟(1548-1623)의 「青梅集」, 靜觀一禪(1533-1608)의 「靜觀集」, 中觀海眼(1567-?)의 시문집 「中觀大師遺稿」이 있다. 「四溟堂大師集」은 四溟堂의 불교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광해군 4년(1612) 초간본과 효종 3년(1652) 후쇄본이 있는데, 초간본인 광해군 4년(1612)본은 7권 1책의 목판본이며, 판각상태가 양호하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光海君 4年(1612)) 刊行의 四溟堂大師集

셋째, 休靜의 2세대와 3세대의 제자들의 문집으로 雲谷沖微(-1613)의 시집 「雪谷集」, 枕肱懸辯(1614-1684)의 「枕肱集」, 虛白明照(1593-1661)의 「虛白集」, 月渚道安(1638-1715)의 「月渚堂大師集」이 있다. 「枕肱集」은 숙종 21년(1695) 仙巖寺에서 간행된 것인데, 卷下는 당시 간행본이고, 卷上은 숙종 21년(1695)판의 후쇄이다.

넷째, 休靜의 4세대와 5세대의 제자들의 문집으로 雪巖秋鵬(1651-1706)의 「雪巖雜著」을 비롯하여 虛靜法宗(1670-1733)의 시문집 「虛靜集」, 無竟子秀(1664-1737)의 「無竟堂大師行狀」과 「無竟集」, 霜月璽封(1687-1767)의 시집 「霜月大師詩集」, 有璣(1707-1785)의 시문집 「好隱集」이 있다. 「雪巖雜著」은 숙종 36년(1710)에 묘향산 관전에서 2권까지 개판하였고, 숙종 40년(1714)에 3권을 개판하여 3권 3책본이다. 「虛靜集」은 영조 8년(1732) 묘향산 普賢寺에서 明頭와 普愚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法宗의 사후 그의 임종계를 실어 別訓이 관각하여 改刊한 책이 있는데, 김민영의 이 改刊本の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休靜의 6세대와 7세대 제자의 문집에는 涵月海源(1691-1770)의 「天鏡集」을 비롯하여, 月波兌律(1695-?)의 「月波集」, 蓮潭有一(1720-1777)의 「蓮潭大師林下錄」, 月城費隱(1710-1778)의 「月城集」, 松桂懶湜(1684-1765)의 「松桂大禪師文集」, 野雲時聖(1710-1776)의 「野雲大禪師文集」, 澄月正訓(1751-1823)의 「澄月大師詩集」, 沖虛旨冊(1721-1809)의 「沖虛大師遺集」이 있다. 그 중 「蓮潭大師林下錄」은 수록된 글 중 불교를 배척하고, 淸을 섬기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실고 있어 그의 불교관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9세기의 불교 흐름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여섯째, 8세대, 9세대, 11세대, 12세대의 제자들의 문집으로 華嶽知濯(1750-1839)의 「三峰集」, 涵弘致能(1805-1878)의 「涵弘堂集」, 暎虛善影(1792-1880)의 「櫟山集」, 括虛取如(1720-1789)의 「括虛集」, 克庵師誠(1836-1910)의 「克庵集」이 있는데, 「涵弘堂集」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3.3.2 浮休善修系의 文集

浮休善修系는 浮休善修의 법맥을 잇는 계파로서 조선 후기에 淸虛休靜系와 함께 불교계의 양대 계파를 이루었다. 김민영 소장본에는 浮休善修의 「浮休堂大師集」을 비롯하여 戒悟의 「伽山藁」까지 9명의 승려들의 문집 12종이 있다.

첫째, 「浮休堂大師集」은 浮休善修(1543-1615)의 시문집으로 서문에 의해 간

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연도인 광해군 11년(1619)본과 이의 후쇄본이 있다. 문집의 卷1~4까지는 229편의 詩가 수록되어 있고, 卷5는 13편의 疏와 1편의 記가 실려 있으며, 卷5 뒷 부분에는 일부의 낙장이 있다.

둘째, 善修의 2세대 제자의 문집으로 翠微守初(1590-1668)의 「翠微大師詩集」과 白谷處能(1617-1680)의 「大覺登階集」이 있다. 「翠微大師詩集」은 규장각 소장본의 간기에 의거하면,¹⁹⁾ 경종 4년(1724) 松廣寺에서 간행하고 보관해 두었던 판목이 있는데, 김민영 소장본은 이 판목에서 후쇄한 것으로 여겨진다. 「大覺登階集」은 卷1~2의 완질본은 없고, 卷1이 3종, 卷2가 2종이다. 수록된 疏 중 「諫廢釋教疏」은 불교문제에 대한 조선시대 6대 상소문 중의 하나로서, 현종이 전국의 승려를 없애려는 斥佛政策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조선후기의 불교 연구 및 韓國釋敎史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²⁰⁾

셋째, 善修의 4세대 제자의 문집으로 無用秀演(1651-1719)의 「無用堂遺稿」과 石室明眼(1646-1710)의 「百愚隨筆」, 5세대제자의 문집 影海若坦(1668-1754)의 「影海大師詩集抄」이 있다. 「影海大師詩集抄」의 발문에 의하면 影海大師의 시문집은 3권이었으나 시집 1권만 전하는 것을 다시 추려서 간행했다고 한다.²¹⁾

넷째, 善修의 6세대에서 8세대 제자의 문집으로 秋波泓宥(1718-1774)의 「秋波集」(그림 12 참조), 默庵嚴訥(1717-1790)의 「默庵集」, 月荷戒悟(1773-1849)의 시문집 「伽山藁」이 있다. 「默庵集」은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순조 1년(1801) 松廣寺에서 간행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19) 翠微大師詩集 규장각 소장본(古3428-625) 刊記

「雍正二年(1724)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留板」.

20) 崔鐘進, “朝鮮 中期의 禪思想史 研究: 西山과 그 門徒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3).

21) 影海大師詩集抄 純祖 1年(1801) 後刷本の 跋文

「吁我先祖影海老之文集三卷■世兩卷已失 但詩一卷中亦畧刊布 所謂存十一於…聖上卽位二年辛酉(1801)六月下泮 小孫臥月教萍書跋」.



<그림 12> 正祖 4年(1780) 刊行的 秋波集

3.4 韓國 撰述類

3.4.1 知訥의 禪書

知訥(1158-1210)은 고려 중기의 禪僧으로 선종과 교종의 대립보다는 불교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을 주창하였다. 그 후 신종 3년(1200)부터 松廣山 吉祥寺에서 지내다 회종 6년(1200)에 입적하였다.²²⁾ 김민영 소장본은 「看話決疑論」, 「圓頓成佛論」, 「誠初心學人文」, 「勸修定慧結社文」, 「牧牛子修心訣」,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16종 16책이 있다.

첫째, 「看話決疑論」은 선조 41년(1608) 松廣寺에서 月日이 서사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은 기존의 판을 번각한 것이 아니고, 새로 판하본을 써서 간행한 것으로 판각이 깨끗하며 판상태가 양호하여 선본에 해당한다.

22) 朴相國, “普照國師 知訥의 生涯와 著述,” 「普照思想」 3: 7-18.

둘째, 「圓頓成佛論」은 선조 12년(1579) 報恩 大菴本이 있으며, 「看話決疑論」과 합철되어 있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慧謹의 발문과 崔沆의 誌文이 있다.²³⁾

셋째, 「誠初心學人文」은 중종 20년(1525) 大光寺本, 인조 13년(1635) 龍藏寺, 고종 20년(1883) 海印寺에서 重刊한 판본의 후쇄본이 있다. 중종 20년(1525)본은 大光寺가 폐사되어 드물게 보는 희귀본으로 여겨진다(그림 13 참조). 인조 13년(1635)본은 전반적으로 판본의 상태가 좋지 않다.

넷째, 「勸修定慧結社文」은 선조 41년(1608) 松廣寺에서 重刊된 목판본이다. 이 판본은 學明이 서사하고, 正寶 등이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판각이 깨끗하고 판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 판목은 현재 松廣寺에 남아있다.

다섯째, 「牧牛子修心訣(諺解)」은 세조 13년(1467)본, 연산군 6년(1500)본과 그 후쇄본이 있다. 그 중 세조 13년(1467)본은 丕顯閣에서 친히 구결하고, 信眉가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권말에는 信眉가 구결하고 국역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尚示衆」, 「古潭和尚法語」의 4法語가 합철되어 있는데, 판식의 특징도 「牧牛子修心訣(諺解)」과 동일하고, 인쇄도 양호하여 같은 시기에 간행하여 합본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13 참조).²⁴⁾ 연산군 6년(1500)본은 세조 13년(1467)본을 저본으로 하여 陝川 鳳栖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판목이 현재 鳳栖寺에 남아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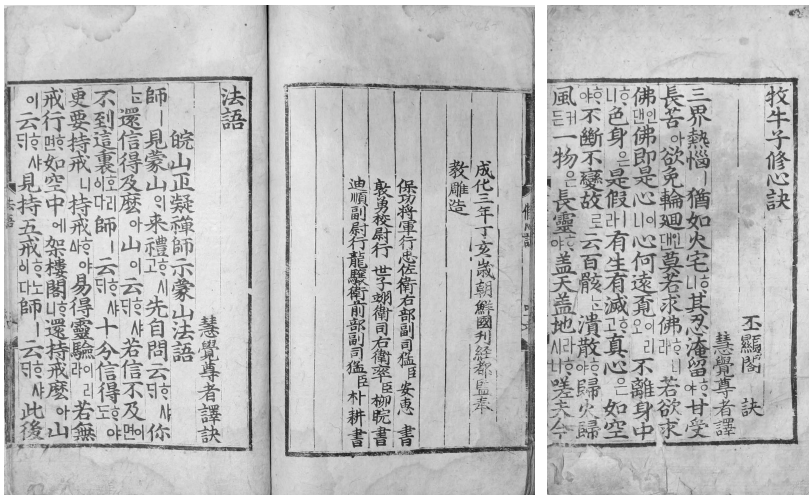
여섯째,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은 성종 17년(1486) 圭峰菴本을 비롯하여 선조 9년(1576)본과 선조 21년(1588), 인조 11년(1633) 釋王寺本, 숙종 7년(1681) 雲興寺本, 영조 2년(1737)에 간행한 6종이 있다. 그 중 선조 9년(1576)본은 성종 17년(1486)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고, 선조 21년(1588)본은 기존의 성종

23) 圓頓成佛論 宣祖 12年(1579) 卷末 慧謹 跋文

「噫近古已來佛法衰發之甚或宗禪而斥教或宗教而毀禪殊不知禪是佛心教佛心語教爲禪網禪是教網遂乃禪教兩家永作怨讐之見…所以先師哀之乃著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遺著在箱篋間近乃得之…洪州居士李克材施財刊板印施無窮…時貞祐三年乙亥五月日 無衣子慧謹跋」.

24) 강순애 해제, “牧牛子修心訣,” 金敏榮 所藏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귀중본해제 10, 2007).

25) 박상국. 앞의 책. 393.



<그림 13> 世祖 13年(1467) 刊經都監本の 牧牛子修心訣(諺解)

17년(1486)본과는 판식이 다르며, 판각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영조 2년(1737)본은 知訥의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 雪巖秋鵬(1651-1706)이 科評을 한 것인데, 그의 사후 영조 2년(1737)에 후학들에 의해 간행된 것이다.

3.4.2 慧謹의 禪書

慧謹(1178-1234)은 고려 후기의 승려로 知訥의 입적 후 뒤를 이어 修禪社의 제2 法主가 되었지만, 禪敎一致나 合一이 아닌 선교우위를 주장하였으며, 선 수행에서도 간화참구를 중요한 것으로 보아 知訥의 사상과는 다른 선풍을 가지고 있었다.²⁶⁾ 김민영 소장본으로는 「禪門拈頌集」 2종이 있다. 그 중 선조 1년(1568) 法興寺本은 卷28~30이고, 책의 끝부분에 法興寺 住持 佛玄의 記文이 수록되어

26) 강순애 해제, 「禪門拈頌集」, 「고서해제 VII」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평민사, 2007), 469-476.

있다. 인조 14년(1636)본은 卷4~30이며, 簾成立, 金見龍, 金現童 등이 분담하여 필사한 것을 雲日, 玄悟 외 8명의 각수가 판각하여 寶城 大原寺에서 간행하였다.

3.4.3 己和의 禪書

己和(1376-1433)는 조선 초기의 승려로 배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수호한 고승이다. 불교와 유교, 도교까지 포함한 삼교일치를 제창하였다.²⁷⁾ 김민영 소장본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說誼) 5종과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3종이 있는데,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說誼)는 경전류에서 자세히 다루어 여기서는 생략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은 세종 32년(1450)본과 중종조에 간행된 판본이다. 세종 32년(1450)본은 안평대군의 발문을 붙여 初鑄甲寅字로 인출한 것이다. 이 책은 안평대군이 秀菴에게서 구하여 간행한 것으로,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중에서 初鑄甲寅字로 인출한 서적으로는 유일본이다. 간혹, 補寫가 섞여 있긴 하지만 판각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중종조에 간행된 판본으로는 중종 33년(1538) 神興寺本과 중종 39년(1544) 石頭寺本이 있다.

3.4.4 休靜의 禪書

休靜(1520-1604)은 조선 중기 때의 승려로, 선을 교보다 우위에 두고 있었다. 그의 법맥을 잇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조선 후기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파로서 성장하였다. 김민영 소장본 중 休靜의 禪書에는 「禪家龜鑑」이 있으며, 선조 40년(1607) 松廣寺本, 광해군 10년(1618) 松廣寺本, 인조 11년(1633) 龍腹寺本, 인조 27년(1649) 通度寺本의 4종이다.

27) 최혜란, “함허당 기화의 「현정론」 연구 : 사회기능론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安東大學校 大學院 2001).

3.4.5 其他 著者の 撰述類

기타 저자의 찬술류에는 覺雲, 快善, 捌開의 찬술류 및 저자미상의 저서들이 있다.

첫째, 覺雲의 「禪門拈頌說話」이 있다. 이 책은 慧謹이 지은 「禪門拈頌集」에 註解를 붙인 것으로 김민영 소장본은 숙종 33년(1707) 興陽 楞伽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둘째, 箕城快善의 저서 「箕城大師念佛還鄉曲」과 「請擇法報恩文」이 있다. 이 두 책은 영조 43년(1767) 鳳泉寺에서 開板한 후 판목을 桐華寺로 옮겨두었다. 「箕城大師念佛還鄉曲」의 권말에는 공덕으로 자신과 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한다는 牡洞散人의 발원문이 있다.²⁸⁾

셋째, 捌開의 저서로 「三門直指」이 있다. 이 책은 염불·敎·禪을 회통적으로 정립하여 편찬한 1책으로 영조 45년(1769) 隱寂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넷째, 저자 미상의 「東吳沙門隱夫顯正論」과 「初發心自警文」이 있다. 「東吳沙門隱夫顯正論」은 중종 32년(1537) 雪俊의 주도하에 信尾가 관각하여 興德 烟起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初發心自警文」은 知訥의 「誠初心學人文」과 元曉의 「發心修行章」, 野雲의 「野雲自警」, 「法語」, 德異의 「蒙山和尚法語略錄」을 합본하여 선조 3년(1570) 無爲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3.5 蒙山德異本

3.5.1 蒙山和尚法語略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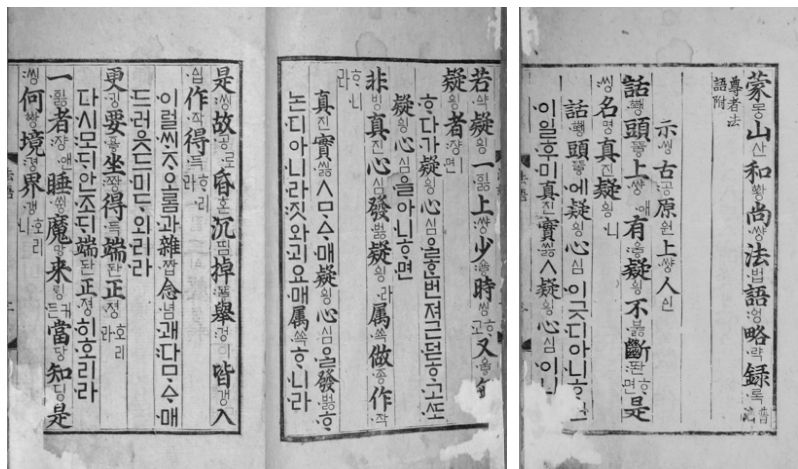
「蒙山和尚法語略錄」은 언해본 3종과 선조 21년(1588)의 간행본 1종이 있다.

첫째, 언해본에는 성종 3년(1472), 중종 16년(1521) 楡岾寺本, 선조 10년(1577) 松廣寺本이 있다. 그 중 성종 3년(1472)본은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²⁹⁾ 성종 3년(1472) 6월에 甲寅小子로 찍은 金守溫

28) 箕城大師念佛還鄉曲 英祖 43年(1767) 卷末 「當今聖主萬世治平永無諸亂終成正覺頭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牡洞散人書」.

의 跋文을 붙여 200부를 찍어낸 것의 1부가 전래된 것이다.³⁰⁾ 이 판본은 앞의 15장 부분에 충식이 있어 보수한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이후로 발문까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양호한 편이다. 현재 보물 제1012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14 참조).³¹⁾ 중종 16년(1521)본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고, 판본의 상태가 양호하다. 선조 10년(1577)본은 간경도감판본과는 판식, 체재, 언어의 표기법이 전혀 다른 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松廣寺에서 간행하고 보관해 두었던 판목에서 후쇄한 것이다.

둘째, 선조 21년(1588)본은 雲門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권말에는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와 合綴되어 있다.



<그림 14> 成宗 3年(1472) 刊行(보물 제1012호)의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29) 信眉 譯訣의 四法語가 함철된 「牧牛子修心訣(諺解)」이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0)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成宗 3年(1472) 卷末 金守溫 跋文
「仁粹大妃殿下發廣大心立四弘願成乃…板本所在模印…法語二百件…以經計者凡二十九秋…化八年(1472)夏六月初吉…金守溫謹跋」.

31) 문화재청 홈페이지. [cited 2008. 5. 14].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VdkVgwKey=12,10120000,31>.

3.5.2 蒙山和尚六道普說

「蒙山和尚六道普說」은 중종조 간행본 및 이의 후쇄본, 명종조 간행본으로 6종이 있다.

첫째, 중종조 간행본은 중종 17년(1522) 無量寺본과 이의 후쇄본, 중종 34년(1539) 廣興寺본과 이의 후쇄본이 있다. 중종 34년(1539)본은 愼初의 주도로 黃石孫이 필사하여 간행되었는데, 글씨체가 크고 늙름한 것이 특징이다. 이의 후쇄본은 중종 34년(1539) 이후에 바로 찍은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명종조 간행본으로는 명종 20년(1565) 佛會菴本과 명종 21년(1566) 安心寺本이 있다. 그 중 명종 20년(1565)본은 본문의 15장과 21장은 필사로 보충하고 있으며, 권말에는 後發이 수록되어 있다.

3.5.3 六祖大師法寶壇經

「六祖大師法寶壇經」은 신라시대 唐나라 留學僧들에 의해 유입되어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이본이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있는 古本은 모두 德異本이다. 김민영 소장본은 초간본으로 여겨지는 고려 대덕 4년(1300)본과 연산군 2년(1496)본, 명종 13년(1558)본, 선조조 간행본, 고종조 간행본의 9종이 있다.

첫째, 고려 대덕 4년(1300)본은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는 없다. 萬恒의 발문에 의거하여 간행년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고, 특히, 마지막 3장은 상부 중앙부분만 일부 남아 있어 「六祖大師法寶壇經」의 초간본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연산군 2년(1496)본은 奉根의 주도하에 義敷, 罔湛, 胤禎이 관각하여 거창 玉泉寺에서 간행되었다.

셋째, 명종 13년(1558) 遂安 靑庵寺本이 있는데, 이 판본은 초간본 德異本을 계승한 것으로 권말에 萬恒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15 참조).

4. 結 論

김민영 소장 불서의 서지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김민영은 1960년대 후반부터 通文館을 통하여 불서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好古堂, 文友書林 등 여러 고서점을 통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서는 734종 1,292책으로 그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대표할 수 있는 집서군이다.

2) 김민영 소장 불서 734종 1,292책에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김민영 소장 불서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판본 등 귀중본의 자료가 151종이다. 소장 불서 중 분석대상은 유간기 자료 272종 388책이며, 그 중 經典類 126종 224책, 儀式儀禮集 49종 52책, 僧侶 文集 46종 51책, 韓國 撰述類 34종 44책, 蒙山德異本 17종 17책이다.

3) 김민영 소장 불서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經典類는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地藏菩薩本願經」, 「大方廣佛華嚴經」, 「楞嚴經」이다. 「妙法蓮華經」은 계열별로 원본과 이를 저본으로 변각한 판본이 시기별로 소장되어 있어 법화경의 유통 및 판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成達生書體系列의 태종 5년(1405) 安心寺本의 변각본인 태종 17년(1417) 文殊寺本, 貞喜王后系列의 7권 3책 완질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성종 1년(1470)본, 活字本系列 중에는 성종 24년(1493) 無量寺에서 세종 32년(1450)의 初鑄甲寅字本을 저본으로 하여 찍은 판본이 대표적이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己和가 說誼 한 중종 32년(1537)본의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說誼) 翻刻本은 전존본 중에서 비교적 시기가 앞서는 판본으로 귀중본에 속한다. 「地藏菩薩本願經」은 단종 1년(1453)본을 비롯하여 翻刻本, 無量寺本의 翻刻本, 音譯本 및 諺解本 등의 다양한 계열의 집서군이다. 그 중 단종 1년(1453) 花岩寺本은 空菴이 필사하여 판각한 것으로 글씨체가 선명하고 판각상태도 양호하여 귀중본에 속한다. 「大方廣佛華嚴經」은 명종 12년(1557)본과 명종 19년(1564)의 「大方廣佛華嚴經疏」은 명종 11년(1566)부터 명종 19년(1564)까지 황해도 歸進寺에서

간행된 판본의 일부분으로, 歸進寺 뿐 아니라 奉恩寺, 月精寺 등 21개의 사찰에서 습心하여 造板한 특징이 있다. 「楞嚴經」은 고려 공민왕 21년(1372) 후인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들이다. 이 중 세조 7년(1461) 「楞嚴經」(諺解)은 乙亥字와 한글 활자가 혼용되고 있어 서지학 및 국어학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儀式儀禮集은 靈魂遷度儀禮集, 常用儀禮集, 禮懺儀禮集, 喪葬儀禮集의 자료들로 조선 시대 후기에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불교 및 신앙 경향을 연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군이다. 靈魂遷度儀禮集中 성종 19년(1488)본의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常用儀禮集의 인조조에 간행된 「雲水壇歌詞」은 판각이 양호하고 드물게 보는 사찰판으로 대표적인 판본에 해당된다.

僧侶 文集은 淸虛休靜系와 浮休善修系의 文集이다. 淸虛休靜系의 文集 中에는 松雲惟政(1544-1610)의 시문집으로 광해군 4년(1612) 초간본인 「四溟堂大師集」은 四溟堂의 불교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善修를 중심으로 한 浮休善修系의 문집에는 경종 4년(1724) 순천 송광사 후쇄본인 「無用堂遺稿」이 대표적인 자료이다.

韓國 撰述類는 知訥, 慧謚, 休靜, 己和 및 기타 저자의 禪書에 관한 자료들이다. 그 中 知訥의 禪書에는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초간본 「牧牛子修心訣(諺解)」이 귀중본에 속하고, 중종 20년(1525) 順天 大光寺에서 간행한 「誠初心學人文」은 大光寺가 폐사되어 드물게 보는 희귀본으로 여겨진다. 己和의 禪書에는 세종 32년(1450) 안평대군의 발문을 붙여 初鑄甲寅字로 인출한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이 귀중본에 해당된다. 慧謚의 禪書에는 선조 1년(1568) 「禪門拈頌集」과 休靜의 禪書에는 광해군 10년(1618)본의 「禪家龜鑑」이 대표적인 자료들이다.

蒙山德異本은 「蒙山和尚法語略錄」, 「蒙山和尚六道普說」, 「六祖大師法寶壇經」이 있다. 그 中 성종 3년(1472)본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현재 보물 제10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종 13년(1558) 「六祖大師法寶壇經」은 초간본 德異本의 번각본으로 권말에 萬恒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귀중본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姜順愛. “成達生書體系 妙法蓮華經 戒環解의 板本에 관한 研究.” 『伽山學報』 6(1997), 33-85.
- _____. “貞喜王后 주관의 妙法蓮華經의 板本에 관한 研究.” 『金重烈 教授回甲 記念論文集 韓國人の 古典 研究』. 서울: 태학사, 1998.
- _____.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보』 10(1999), 55-92.
- _____. “牧牛子修心訣.” 『金敏榮 所藏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2007.
- 길희성.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과 知訥 禪思想의 構圖.” 『普照思想』 17 (2002), 399-419.
- 金純美.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板本考.” 『釜山漢文學研究』 17(2003): 27-68.
- 김순석. “조선후기 불교계의 동향”. 『국사관논총』 99(2002), 79-100.
- 金侖壽. “朴致維의 坊刻本 佛典과 白姓大師의 筆削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1993), 415-444.
- 南權熙. “地藏菩薩本願經의 板本 研究”. 『古印刷文化』 13(2006), 53-112.
-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석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佛書を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김민영 소장 귀중본 특별전』. 서울: 동국대학교, 2007.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_____. “普照國師 知訥의 生涯와 著述.” 『普照思想』 3(1989), 7-18.
- _____. “現存 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유통.” 『서지학연구』

4(1989), 125-159.

박종민. “한국 불교의례집의 간행과 분류.” 『역사민속학』 12-1(2001), 109-124.

양지윤. “朝鮮後期 水陸齋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李賢子. “直指寺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城大學校 大學院, 2003.

林英淑. “知訥의 撰述禪書와 그 所衣典籍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1986), 251-267.

정병삼.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 35(1998), 127-160.

_____. “19세기의 佛敎界의 사상적 추구하고 佛敎藝術의 변화.” 『韓國思想과 文化』 16(2002), 159-194.

_____.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48(2007), 87-117.

_____. “六祖大師法寶壇經.” 『金敏榮 所藏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2007.

천혜봉 해제. 『서울의 문화재』 4(2). 서울: 서울특별시, 2003.

崔鐘進. “朝鮮 中期의 禪思想史 研究: 西山과 그 門徒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3.

崔成烈. “看話決疑論의 分析的 研究.” 『범한철학』 9(1994), 437-474.

崔惠蘭. “함허당 기화의 『현정론』 연구: 사회기능론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安東大學校 大學院, 2001.

河英淑. “法華經板本考.”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0.

許英仙. “金剛般若波羅密經 漢譯諸版에 대한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3.

문화재청 홈페이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